

한국 사람을 만들어 온 동아시아 지성 600년의 역사를 추적한 역작

(함재봉 저, 『한국 사람 만들기 1』, 아산서원, 2017)

이숙인(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한국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이 책은 얼핏 에세이 류의 가벼운 주제를 다룰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한다(책 제목 때문일까?). 하지만 이 책은 근대 이전의 한국 근 6백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지금 한국인을 구성하는 사유와 습관의 계보학을 깊이 있게 추적한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사상사이다.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인데다 분량 또한 만만치 않아 어렵고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쉽고 너무 재밌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유년기의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이 씨앗이 되어 점점 자라나며 사유와 실천의 30여년이 이 저술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주자성리학과 조선전기, 만주족의 청(淸) 건립과 조선후기의 대청(對淸) 인식, 19세기 서구와 만나는 동아시아 각국의 움직임과 조선 지식인의 현실 인식 등 방대한 지식과 역사를 가로지르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사람’으로 집약시켜가는 그림이다. 우선 1권에 들어있는 내용만 해도 깊이와 넓이를 갖춘 대작인데, 모르고는 하지만 저자에게 더 유리한 근대이후의 사상에 대한 연구는 어떤 면모로 나타날지 크게 기대된다. 한편 현재 움직이는 주제들이라 우려도 된다(이 책을 소개하는 저널들의 수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저자는 당대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를 정치·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보도록 하고, 학문적 용어 및 이론까지도 그것이 나오게 된 관계를 통해 접근하여 설명한다. 좁게는 동일한 시공간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넓게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그리고 문명권이라는 공간적 확대를 통해 그 작용과 반작용의 추이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조선의 선비 ‘士’의 등장과 정체성을 송대 성리학이 형성될 당시의 문제의식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과학과 학술, 문자 개발 등 성군 세종의 업적을 기리고 소비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저자는 그것을 당시 세계 문명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함으로써 조선의 정치를 입체적으로 보도록 한다. 여기서 세종의 위대함은 전혀 손실을 입지 않을 뿐 아니라 선진 문명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로 부각된다(독자에게 그렇게

읽힌다). 이러한 방식은 역사를 또는 역사 인물을 추상화하고 관념화함으로써 ‘지금 우리’와 단절시키는 역사 서술과는 확연히 다르다. 역사를, 역사인물을 끊임없이 재소환하고 그들의 사유와 실천을 재조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만들기’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의 ‘한국사람 만들기’ 시리즈는 매우 복잡한 그물망을 쳐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3. 저자는 조선사회 지식인의 인식과 실천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그 지식의 연원과 형성을 당시 문명의 모델이던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 예컨대 조선의 선비가 추구하는 이상이나 이념이 사실 어디서 연원하고, 어떻게 수용하여 의미화 하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최첨단의 농법을 꿰뚫고 백성들의 소득 증진에 고심하는 등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 사유하고 실천한 주희와 언필칭 ‘주자왈’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일생의 목표로 삼았던 조선 선비들의 주자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또 송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위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그 사회경제적 맥락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사농공상의 질서를 금과옥조로 여긴 조선 선비들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저자의 의도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만주족 청(淸)이 군사 및 정치체제를 어떻게 정비했고 주변을 어떻게 포섭해나가는가를 다소 길게 설명한 것은 조선 후기 정치가들의 청 인식의 문제와 국제 정치에 대한 감각의 한계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조선’의 구성이 중심 문명에 대한 모방과 해석의 과정을 통한 것임을 책의 전반을 통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현재를 분석하는 데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4. 이 책은 조선적 사유와 관습의 연원이라 할 수 있는 송대 주자성리학의 정치경제를 상세하게 조명함으로써 도덕적 주체로 부각되었던 선비[士]를 다각화한다. 제례와 종법제도 형성의 맥락이나 『주자가례』 저술의 정치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저자의 심도 있는 설명은 기존의 조선사상사 서술이 미치지 못한 점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조선의 지식인들은 명(明)의 사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매우 소략하고(101, 102쪽), 명말청초의 사상을 조금 언급하고는 곧바로 청(淸)으로 넘어간다. 송명유학이라고도 하고, 조선사회의 법제도적 판단과 심성이 『대명률』에 근거했으며, 또 조선후기의 송명(崇明) 기조를 감안한다면 명(明)의 정치문화 학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송대 사상 분석과 같은 분석을 기대했다), 이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듣고 싶다.

5. 역사를 보는 시선에 따라 현재 분석과 미래 전망의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저자의 글쓰기는 우리에게 부정적이거나 우울할 정보마저도 비관적으로 보기보다 당당히 맞서도록 하고 가능성으로 타진토록 하는 힘이 있다(병자호란 때 청군에 잡혀간 피로인(被擄人)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이다. 최명길과 조선의 궁궐에 앉아 여자 피로인을 상상하는 시선의 차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일정한 방향과 체계로 배치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논지를 펼쳐간 저자에게서 역사에 대한 균형감과 인간에 대한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예송 논쟁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너무 관대하다. 불만이다. 한 개인의 정치적 주장이란 과연 자신의 철학에 근거한 것인지, 사심과 편견이란 전혀 없는 것인지. 송시열 송준길을 비롯한 이른바 절의를 주장한 인사들의 진면목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6. 본문 내 궁금증

- 95쪽 번역: ~ 若止祭禱, 只爲知母而不知父, 禽獸道也. ~
→ 아버지 제사만 지낸다든가 (또) 어머니만을 알고 아버지를 모르는 것은 금수의 도다.
- 52쪽: “신사임당과 이사주당이 이토록 다른 삶을 산 것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 이러한 해석이 갖는 의미와 한계에 대한 저자의 구체적인 생각이 궁금하다.
- 290~292쪽: 원명원을 약탈하고 불 지른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빅토르 위고의 경고성 편지는 무엇이 지성인지를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라 여겨진다. 글의 내용 뿐 아니라 문장이 너무 좋아 확인했더니 저자가 직접 하신 거다.
- 222쪽: 『양주일기』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으로 글이 쉽고, 비문이 거의 없고, 문장의 전달력이 강하다는 점을 들고 싶다. 따로 메모해 두고 싶은 명문장들이 아주 많다. 이 또한 저자의 오랜 세월 축적된 내공 때문인 듯하다.